



# 경기침체 이전 바닥쳤다(?)

## 올들어 회복세 뚜렷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잉크업체 관계자들은 어려움을 겪던 이 지역의 잉크시장이 각 나라, 지역 곳곳 산업전반에 걸쳐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남아메리카 지역 및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국의 하나인 멕시코를 담당하는 브리질 상파울로 소재 선케미컬라틴아메리카의 조지 로슨 사장은 "잉크산업은 지난해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올해에는 분명한 회복세를 나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플린트잉크라틴아메리카의 제르코 렌더 사장은 "이 지역에서 평균 6%의 성장률을 유지해왔다. 이와 같은 성장률이 약간은 둔화되더라도 향후 4~5년간 적어도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전해왔다.

이 지역 2003년 일반 경제성장률에 대한 긍정적인 예상은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더 좋았던 올해 초 만큼 밝지는 않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린위치 CT의 UBS와버그의 최고 라틴아메리카 경제학자 마이클 가빈은 멕시코를 포함한 이 지역 GDP 성장률을 이전의 2.4%에서 1.5%로 낮췄다. 이는 대체로 멕시코가 GDP 성장률을 3.0%에서 1.9%로 하향 조정할 때 따른 결과이다.

그렇지만 가빈은 내년에는 이 지역 GDP성장률이 4.1%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러한 라틴아메리카 GDP 성장률은 미국에 비해 올해는 1% 낮은 것이나 향후 전망치는 1% 높은 수치이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멕시코의 GDP규모가 6370억달러로 가장 크며, 브라질이 4470억달러, 아르헨티나가 1020억달러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칠레, 페루가 각각 950억달러, 820억달러, 660억달러, 570억달러에 이른다.

### ● 연포장 분야 성장세 두드러져

몇몇 제조업체들은 현재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한다. 아마도 가장 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는 쓰레기 처리비용, 보다 복잡해진 음식의 맛 보존, 기타 미용용품 등에서 생산이 증가되고 있는 연포장 부문일 것이다.

플린트잉크의 렌더 사장은 "연포장(식품)의 성장률은 몇몇 국가에서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뒤집을 수 없는 대세이다"며 "식품 포장은 꾸준한 인구 성장률과 교육수준의 향상에 따라 한해 약 3~4% 성장하고 있으며 몇몇 분야는 10% 혹은 그 이상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다른 분야는 신문, 잡지 수요의 감소에 따라 출판잉크를 포함해 분명한 퇴조에 있다는데 제조업체들은 동의하고 있다. 인쇄미디어 광고의 더욱 많은 감소는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브라질과 같은 나라들의 통계는 이를 잘 보여준다.

선케미컬의 로슨 사장은 "각 국가상황에 대한 전문가적인 분석 없이도 지난해 동안 이 지역 매엽 인쇄물 수요가 8~10% 감소하고 신문과 잡지의 수요가 4~6% 줄어들고 있으며 포장수요가 3~4% 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 ● 멕시코, 수출로 불황 타개 시도

멕시코의 잉크시장은 현재의 GDP 성장률을 유지한다면 올해에는 200~300만달러

1억5천만달러로 추정되는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4% 이상 된다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원자재의 수입의존률이 높기 때문에 이익률이 상당히 잠식당할 것이다.

멕시코시티의 산체스 S.A de C.V의 어니스토 산체스 이사는 “멕시코 잉크 분야는 그라비아에서 약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플렉소가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포장과 관련 있는 GDP보다도 더 빠르게 성장한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멕시코에서 두번째로 큰 회사로서 지난 2002년도 잉크 판매량이 1천 6백만킬로그램, 3천5백만파운드에 달했다.

산체스 이사는 “다행히 이러한 경제 침체 속에서도 인쇄업체들과 포장업체들은 새로운 장비에 대한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는 이용 가능한 더 많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의미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자율경쟁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 비용 효율적인 방법으로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 업체들은 새로운 장비와 기술의 투자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이와 관련, 산체스 이사는 “멕시코시티에 2만평방피트의 수성잉크 공장을 확장하기 위한 건축사업의 절반은 끝마쳤으며 내년에 약 5만평방피트의 오프셋 공장을 확장, 준공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국립 협회 La Camara Nacional de la Industria de las Artes Graficas, or Canagraf에서 발표한 최근의 산업 분석에 따르면 멕시코 잉크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선 더 많은 수출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최근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인쇄물의 수출이다. 그러나 멕시코는 수출하는 것을 아직 배우지 못했다”고 결정 내렸다. 또한 협회는 권고사항에서 국내 및 국제적인 동반자를 통해 인쇄의 총비용을 낮추고 미국과 같이 시

장에서 사업 유닛을 조작하기 위해 더 전략적인 동맹의 형태를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 ● 브라질, 환율과 인플레이션 안정세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의 잉크시장은 2002년에 14% 감소했다. 감소의 가장 큰 요인은 브라질 통화의 평가절하였다. 2001년 1달러 당 2.3레알이었던 브라질 통화가 지난해에는 3.5레알을 기록했다. 올해 레알화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1달러에 3.7레알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표1〉라틴아메리카 각 국 GDP 성장률

	2001	2002	2003	2004
아르헨티나	-4.4	-10.9	4.3	5.0
브라질	1.5	1.5	2.0	3.1
칠레	3.1	2.1	3.4	4.4
콜롬비아	1.4	1.5	2.0	3.5
에콰도르	5.6	3.4	2.0	3.0
멕시코	-0.3	0.9	1.9	3.9
페루	0.6	5.2	4.5	4.9
베네주엘라	2.8	-8.9	-15.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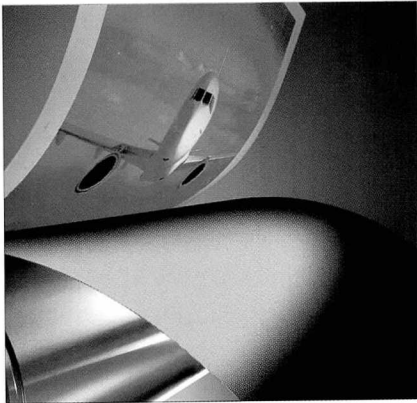
\*는 2003년 5월 기준 추정치 (자료 : UBS와버그)

브라질 상파울로 소재 크로모스틴타스그라피카스의 마케팅 이사 프란시스코 벨로소는 “2003년 1/4분기동안 시장규모 14%가 감소했으며 올 한해 총 감소율은 5~10% 정도로 예상된다”고 추정했다. 또한 브라질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은 2001년에는 7.7%였으나 지난해에는 12.5%에 이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의해 브라질의 외환사정은 한층 더 악화되고 있다.



시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지역 잉크 회사들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활동 또는 국내 활동을 하는 많은 회사들은 경기침체기에 전략적인 동맹, 조인트 벤처, 인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크로모스의 벨로스 마케팅 이사는 “연포장 인쇄 영역에서 기술적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자국 제조업체들이 외환 변동의 뒤흔음을 맞추는데 매우 큰 곤란을 겪는 동안 대형회사들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다행히 올해의 인플레이션 증가폭은 둔화, 13%에 그칠 것이며 내년에는 약 8%로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브라질 산업 협회 Associacao Brasileira Da Industria Grafica, or Abigraf(이하 아비그라프)는 지난해 상승한 원자재 비용이 적당하게 고객들에게 적용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아비그라프에 따르면 브라질의 각 산업 중에서 잠재적인 성장을 보여온 분야는 연포장 분야로서 2002년 최종소비자의 수요도 약 5% 증가했다.

연포장 분야의 최대 고객은 접착제, 농약, 유탄제, 동물사료, 페인트 등의 제조업체들이다.

종이 카톤용 수성 연포장 인쇄의 산업 리더인 크로모스의 벨로스 이사는 “상파울로주 구아룰호스 지역에 있는 제5공장을 올해 안에 온라인화 할 예정이다”라

며 “신규 공장은 이러한 분야에서의 잠재적인 성장률 특히 연포장 인쇄 시장의 2/3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식료품 분야에서 유리한 기회를 갖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고 밝혔다.

#### ● 아르헨티나, 올해부터 감소세 반전 예상

아르헨티나의 잉크시장은 2001년에 거의 1억2천만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 10.9%의 경영실적 감소를 나타낸 GDP는 올해에는 하향세에서 회복세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초의 결과에 근거한 UBS 경제전문가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경제성장률은 올해는 4.3%, 2004년에는 5%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아르헨티나의 폐소화는 US달러와의 외국환율 관계에서 커다란 격랑을 겪어야만 했다. 2001년에는 1 : 1이던 폐소화의 가치가 2002년에는 3.4 : 1로 하락했다. 다행히 폐소화가 올해에는 1 : 2.8의 비율로 회복할 것으로 기대되며 지난해 50% 이상 하락했던 수입물량도 약간의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잉크시장 회복의 주요한 동력은 수입규제에 따라 국내 생산 포장이 되어왔다. 국가산업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포장제품 수출의 증가는 출판산업용으로 수입되는 종이 제품의 감소와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돼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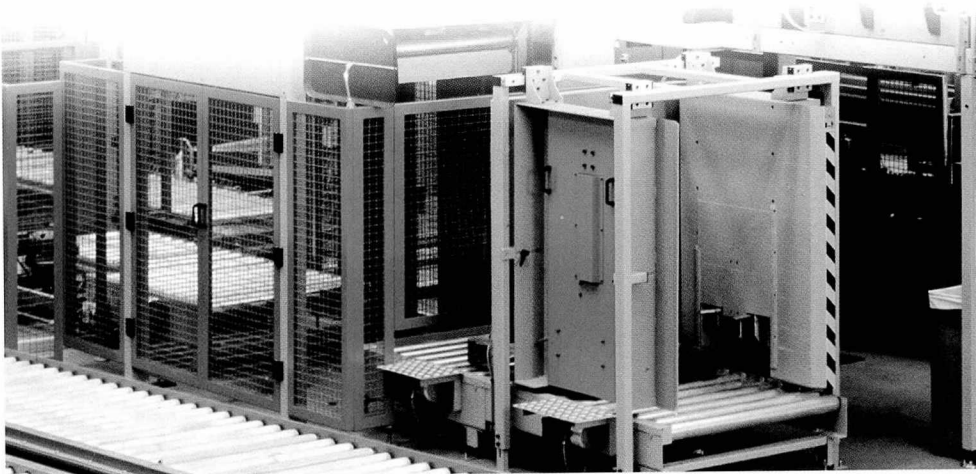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US상무부의 포장분야 전문가 릴리아나 파즈의 1월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포장산업은 식료품산업, 세척제, 가정용품과 연계된 60%의 지역 제품에 의해 조정돼 왔으며 2000년, 포장산업은 GDP 국가 총수요 41억달러의 1.5%를 약간 상회하는 생산량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중소국들, 보다 많은 기회 제공

라틴 아메리카 지역 많은 중소 국가들의 잉크산업은 매우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사이에서 페루는 올해 몇몇 분야에서 매우 두드러진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2003년 페루의 GDP 성장률은 5.2%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다소 둔화된 4.5%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는 여전히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칠레도 가파른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칠레는 2.1%의 성장률을 보였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4%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2004년의 예상치는 무려 4.4%에 이른다. 또한 칠레는 선캠이컬이 품질과 지역 생산시설과 관련, 지역적 존재를 높이고 기술을 이전하는 지역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선캠이컬은 지난 몇 년간 산티아고 소재 두 개의 제조공장에 이러한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7백만달러를 투자했다고 밝혔다.

중남아메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의 성장률도 높은 편이다. US상무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 등은 식품 포장 인쇄시장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2002년 8월의 영사관 리포트는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의 인쇄사들은 지역산업 분야에서 프린팅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이로써 인쇄 능력을 증가시키고 가격을 낮추는데 성공했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 지역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타리카의 프린팅과 그래픽아트 장비시장은 2000년과 2001년에 각각 2960만달러, 2180만달러를 기록했다고 평가했다. 잉크업체들은 이 지역 소규모 국가에서도 신규투자를 통해 이와 같은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체스 S.A의 산체스 이사는 “포장시장에서 좋은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엘살바도르에 지난 2002년 말, 지점을 개설했다”고 말했다.

●인수·합병 기회 열려 있어

시장에 활력이 떨어지고 있지만 라틴아메리카 지역 잉크 회사들은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적인 활동 또는 국내활동을 하는 많은 회사들은 경기침체에 전략적인 동맹, 조인트 벤처, 인수 등을 계획하고 있다. 크로모소의 벨로소 마케팅 이사는 “연포장 인쇄 영역에서 기술적인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자국 제조업체들이 외국인 변동의 밸런스를 맞추는데 매우 큰 곤란을 겪는 동안 대형회사들은 급격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플린트인크라틴아메리카의 렌딩 사장은 “플린트인크는 지금 라틴아메리카의 다국적기업들 중에서 선케미컬에 이어 2번째 강자이다. 그런데 시장의 50% 혹은 그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 회사들의 규모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며 “만약 이 지역 업체들이 원자재를 지금보다 많이 생산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고통받을 것이며 그러는 동안 통합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통합은 라틴아메리카의 자유무역협회의 빠른 확장에 힘입어 생각보다 더 신속하게 일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머코서는 멕시코에서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선케미컬의 로손 사장은 “다른 잉크 회사들의 인수는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복합적인 수익보다 복합적인 판매에 대해 얘기하기 원하며 수요가 줄어들 때 비현실적인 가격에 회사를 팔기 원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동안 선케미컬은 전세계에서 인수작업보다는 최신의 기술을 이전하는 작업에 열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각 제조업체들은 외환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 기술의 이전을 강구하고 있다.

로손 사장은 “다국적 기업들이 달러 또는 유로화 기반의 완제품 잉크 수입실적의 80%를 담당해 왔다. 이에 우리는 보다 지역적으로 제조하는 것에 노력해야만 한다”며 “예를 들어 예전에는 히셋 잉크 수요의 80%를 수입해왔는데 지금은 단지 1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전히 원재료의 50% 이상을 수입하고 있지만 이는 통화의 환전비용과 관련, 제작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긍정적인 단계이다”고 덧붙였다.

(조갑준 기자)

더 이상의 선택은 없다!

고품격 디지털 인쇄 기술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귀사와 함께합니다.

Mako 4 CTP



- ◎ 최대 노광폭 : 645mm x 927mm
- ◎ 해상도 & 속도  
7개의 해상도 선택가능  
(1200dpi-3556dpi)  
2540dpi - 20판
- ◎ Harlequin ECRM RIP V6.0  
(Postscript Level 3)
- ◎ 온라인 프로세스
- ◎ 매체종류 : 바이올렛 메탈 플레이트
- ◎ 교정용 출력 동시 가능
- ◎ 수동 또는 온라인 현상기 선택
- ◎ 잔 고장이 없는 손쉬운 사용자 관리 및 애프터 서비스

토탈컴텍(주)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3가 49번지 지산빌딩 519호 전화: 02)2285-4550,4551 팩스: 02)2285-4552  
URL: <http://www.totalcomtech.com> Email: [totalcomtech@korea.com](mailto:totalcomtech@korea.com)